

「장군의 수염」의 메타-추리소설 경향 연구*

오윤호**

1. 서론: 추리소설로서의 「장군의 수염」
2. 추리의 서사적 경쟁과 범죄사건으로서의 ‘죽음’
3. 다원적 진술의 수사와 우울증 환자의 실존적 자살
4. 중층 구조와 정치적 타살
5. 결론: 메타 추리소설 양상과 60년대 소설 기법

국문요약

본고는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에 나타난 메타-추리소설적 경향과 그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여, 1960년대 우리나라 추리소설의 공백기에 「장군의 수염」이 갖고 있는 추리소설적 조건의 유효성과 그 양식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의식을 고찰하려고 한다. 즉 「장군의 수염」에 나타난 추리소설의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며,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추리소설의 장르적 속성을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리’ 및 ‘논리’를 소설의 중층적 구조 속에서 ‘철훈의 죽음’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과정을 밝히면서 「장군의 수염」의 메타 픽션적 특징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장군의 수염」은 본격소설과 장르소설, 지식인/대중의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양식과 내용을 혼용하며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는 알레고리적인 메타소설이다. 또한 사실주의적 경향과 추리 형식을 결합하여, 60년대 소시민이 겪게 되는 현실과 전쟁 후의 존재론적 위기 사이의 간극을 표현하고 있으며, 소시민의 일상과 삶의 궤적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폭력적인 정치적 담론의 움직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장르소설과 추리소설의 절묘하고도 이질적인 결합을 잘 이끌어냈다. (주제어: 추리소설, 이중플롯, 메타소설, 카타르시스, 실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KRF-2007-361-AL0015)

** 이화여자대학교 HK 교수.

1. 서론 : 추리소설로서의 「장군의 수염」

본고는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¹⁾에 나타난 메타-추리소설적 경향과 그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여, 1960년대 우리나라 추리소설의 공백기에 「장군의 수염」이 갖고 있는 추리소설적 조건의 유효성과 그 양식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의식을 고찰하려고 한다. 즉 추리소설이 갖고 있는 장르소설의 고정화된 형식 및 기법이 새로운 서사 기법으로 변용되는지를 밝히고, 내면화된 전쟁 경험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내포한 정치적 폭력성이 한 소시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정치적 영향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은 1960년대 소설 경향인 서술 기법의 참신함과 언어적 실험성이 돋보이지만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태동은 「장군의 수염」이 비평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작가인 이어령이 전업작가가 아니라,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기 때문”²⁾으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서 「장군의 수염」은 액자소설적 특징이 강조된 서사구조적인 측면과 주인공(철훈)의 죽음에 접근해 가는 형사와 소설가의 탐색에 주목하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논의되었다. 황정현은 「장군의 수염」의 중층구조걸 이야기와 속이야기로 이루어진 구조를 분석하여, 서술자의 존재방식 및 서술 수준간의 결합과 경계를 분석하여 60년대 새로운 미적 형식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³⁾한다. 「장군의 수염」은 액자소설적 구성으로 기존 소설 텍스트의 문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으며, 주인공 철훈의 근대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실존적 자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60년대 소설적 경향과 부합하는 면이 없지 않다.

「장군의 수염」은 작품의 시작이 주인공 철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박형사와 소설가인 ‘나의 범인 찾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다층적 액자

- 1) 이어령, 『이어령 소설집-장군의 수염/전쟁데카메론 외』, 현암사, 1966.
- 2) 이태동, 「「장군의 수염」과 캐논 문제」, 『구조와 분석2』, 도서출판 창, 1993.
- 3) 황정현, 「중층 구조의 경계 완화를 통한 의미 탐색-「장군의 수염」의 서술구조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p.394, 410쪽.

구성, 사회체제에 의해 파괴되는 개인, 인과론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 미해결의 결말” 등이 나타나면서, 「장군의 수염」은 여타의 추리소설과는 그 서사적 양식이나 특징들이 남다르다. 이에 백대운은 이어령이 작품집의 말미에 적은 ‘형이상학적 추리소설’이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장군의 수염」의 이러한 양상을 “형이상학적 추리소설”이라고 명명하고, 이 작품이 기존의 추리소설 작품과는 달리 ‘부조리한 사회와 소외된 개인’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⁴⁾ 그러나 ‘형이상학적’이라는 수식어를 1950년대 실존주의에 기대어 분석⁵⁾함으로써, 「장군의 수염」이 갖고 있는 메타적이면서도 장르해체적인 ‘형이상학적 서술’의 특징을 놓치고, 형이상학적 시각으로 보는 추리소설의 조건들에 대한 명료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는 현실적인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존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그 속에 얽혀 있는 살인 동기 등을 밝히면서 인간 심리의 심층적인 부분과 함께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⁶⁾ 따라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논리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장군의 수염」은 하나의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화된 ‘죽음’ 때문에 가능할 것인지, 잠재적인 ‘살해’ 가능성에 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또한 수사 과정 역시 ‘단서’의 객관성과 ‘추리’의 논리성과는 무관하게,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박형사나 ‘나’는 서사적 경쟁(누가 먼저 범인을 잡을 것이냐)을 하면서도 탐정(혹은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 게다가 작품의 결말에서 범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범인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장군의 수염」은 추리소설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4) 백대운, 형이상학적 추리소설 「장군의 수염」 연구, 어문연구 51, 2006, p.108.

5) 백대운은 이어령이 말한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배경열이 쓴 “실존주의를 주창하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 쪽으로 달려간”(『50년대 실존주의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p.252.)이라는 표현과 결부시키고 있다.

6) 박미령, 「타자담론의 서사전략: 전통추리소설의 모방과 변주」, 노어노문학 제19권 제3호, 2007, 172쪽.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어령 스스로가 자신의 소설에 대해 언급한 ‘형이상학’이라는 표현과 「장군의 수염」이 여전히 ‘하나의 죽음’에 대한 살인동기를 찾는 추리 소설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형이상학은 어원적으로 “물리학(physics)에 시간적으로는 ‘다음’이며 논리적으로는 ‘고차’를 뜻하는 meta가 붙은 말⁷⁾”로 “피지카의 세계, 감각의 세계 배후에는 경험과 관찰로는 알 수 없고 순수한 사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메타피지카의 세계(인간의 영혼, 선과 행복, 신이 존재하는 영역, 진리의 세계⁸⁾)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설에 있어서는 양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개된다. 메리베일과 스위니는 『장미의 이름』을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규칙을 깨고 전형적인 서사구조인 단힌 형태를 무너뜨리고 열린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분석하며 형이상학적 소설이라고 명명한다. 형이상학적 소설이란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관습(서사의 종결 방식, 독자를 대신하는 탐정의 역할 등)을 패러디하거나 전복하는 텍스트, 또는 적어도 존재의 미스터리에 대해 질문하거나 미스터리 플롯의 책략을 넘어서는 텍스트”라고 규정한다.⁹⁾

「장군의 수염」도 형이상학적인 대상을 다룬다기보다는 하나의 진리 탐구의 방법론적 ‘전략’으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장군의 수염」에서 작가의 ‘형이상학적’ 접근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 인식과 보편적 진리’보다는 ‘주인공 철훈의 죽음’, ‘박형사와 소설가인 ‘나’의 수사’ 기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면상으로 자살로 보이는 철훈의 죽음을 박형사는 ‘타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할수록 소설가인 ‘나’ 역시 철훈

7) 박이문, 『사유의 열쇠-철학』, 산치림, 2002, 55쪽.

8) 남경태, 『개념어 사전』, 2006/2007, 431쪽.

9) P. Merivale & S. E. Sweeney, “The Gaw's Afoot”, *Detecting Texts: The metaphysical detective story from Poe to Post-modernism*, Uni of Pennsylvania, 1999, p.2, 김영성, 「추리소설의 근대성과 문학적 가능성」, 한국언어문화 제21집, 130쪽에서 재인용. 본고에서는 ‘형이상학적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보다는 ‘메타-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장군의 수염」이 추리소설의 기법과 장르규범을 그 자체로서 해체적으로 재규정하고 있어 ‘메타’라는 수식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의 죽음을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에 다다른다. 여기서 일반적인 추리소설의 공식인 ‘살인사건—수사—범인찾기’는 「장군의 수염」에서 재해석되고, 재규정된다.

하나의 죽음을 살인으로 볼 것이냐? 자살로 볼 것이냐?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범인은 누구인가?와 같은 추리소설의 근본적인 서사성을 문체상과 있다는 점에서 「장군의 수염」은 추리소설(혹은 추리기법)에 대한 메타적 사유를 하고 있다. 결국 「장군의 수염」은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을 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장군의 수염」에 나타난 추리소설의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며,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추리소설의 장르적 속성을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리’ 및 ‘논리’를 소설의 중층적 구조 속에서 살펴며 제3의 탐정과 제4의 탐정을 설정하고, 철훈의 죽음이 각각의 추리 과정에서 어떻게 재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장군의 수염」의 메타픽션적 특징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2. 추리의 서사적 경쟁과 범죄사건으로서의 ‘죽음’

「장군의 수염」은 전직 사진기자였던 김철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철훈은 방 안에서 연탄가스에 질식사하여 죽었으며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타인에 의한 타박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철훈의 죽음은 정황상 타살로 의심되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 박형사는 그의 죽음에 강한 의문을 품고, 그가 남긴 편지와 소설에서 그와 소설가인 ‘나’와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소설을 쓰기 위해 호텔방에 머물던 ‘나’를 찾아오게 된다. 단순한 자살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은 박형사의 호기심과 추리로 ‘살인사건’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인식은 추리소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원인 사건을 추론하게 만들고, 범인 찾기를 추동하게 한다.

그러나 「장군의 수염」은 타살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첫 번째 미궁에 빠지게 된다.

“가스 중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①부주의에서 온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자살 아니면 타살이었죠. 그런데 그는 사진부 기자였습니다. ②만약에 자살을 하려면 더 손쉬운 방법을 썼을 겁니다. 사진 현상을 할 때 극약을 다루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③그는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자살을 했어도 어머니를 만나보고 죽었을 것입니다. 한테 그게 바로 어머니가 올라오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④나는 손톱을 깎지 않은 자살자의 시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죽음을 예비하는 데 있어 모두 한 가지씩 감상적인 증거를 남겨 둔 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13-14쪽. 원번호 필자)

김철훈의 가스중독사를 의도적 행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한 박형시는 그 사건에서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나열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에서나 나올 법한 인상적 추정일 뿐 객관적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다. 그가 제시하는 단서들은 ②의 경우는 자살 방법의 경제성, ③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애정, ④의 경우는 죽음에 대한 감상성 등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자의 이상심리 상태와는 맞지 않는다. 또한 박형시는 김철훈의 죽음을 타살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강제적 타박상이 없고, 평소 친구가 없었으며,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 역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가장 골치 아픈 일에 속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라진 카메라’를 수소문한다.

일반적으로 추리소설에서의 ‘죽음’이 그 발생 단계부터 문제적 상황(살인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맥락적 조건들)과 범인(실체화되지 않더라도, 잠재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장군의 수염」은 김철훈의 죽음 자체를 범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유예된 채 추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건의 맥락화라는 차원에서, 김철훈의 죽음을 자살로 봤을 때는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며, 타살로 봤을 때는 다시 범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형시는 ‘나’에게 “우리의 목적은 남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다만 그의 사인(死因)을 규명하자는 것이니까요”라고 말하며, 범

인 찾기보다는 김철훈이 죽은 이유(死因)를 찾기를 원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추리소설은 사인을 찾는 것이 곧 범인을 찾는 것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철훈의 죽음을 두고서 ‘나’와 서사적 경쟁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타살일 겁니다. 나는 카메라의 행방을 찾아야겠습니다. 자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죽었는지도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형사보다는 선생님 같은 문학자나 심리학자나 철학자님들이 할 일이지요. 만약 협조해 주신다면 증거물로 보존된 그의 수기 노트를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22쪽)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화려한 꽃상여, 따뜻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왜 그가 죽었는지를 밝혀 내야 해요.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법과 경찰을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병원과 새로운 의학연구를 하게 했어요. 거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지요. 남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쓰고 새롭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철훈군의 죽음도 그냥 끝난 것만은 아닐 겁니다.”(28-29쪽)

박형사는 객관적 단서인 김철훈의 편지, 헤어진 여자 친구, 사라진 카메라의 행방 등 객관적 정황에 해당되는 내용을 쫓으면서 ‘타살’로서의 증거를 찾고, 소설가인 ‘나’의 경우는 김철훈이 남긴 ‘수기’와 ‘소설’, 다른 사람들의 김철훈에 대한 기억 등 주관적이면서도 경험적인, 혹은 허구적인 정황에 해당되는 내용을 쫓아 ‘왜 죽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 서사 라인의 진행은 일반적인 추리소설에서 탐정과 범인 간의 서사적 경쟁을 탐정과 탐정 간의 서사적 경쟁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추리소설의 흥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 역시도 철훈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나’는 소설가이며, 삶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소설을 쓴다고 하지만 엉뚱한 일에 관심을 보일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다.¹⁰⁾ 일반적인 탐정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 효용론을 내세운다. “남들

10) “사건 조사자는 흔히 이익과는 관련없는 딜레탕트하고 식겨있는 애호가일 경

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쓰고 새롭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말은 범인을 찾겠다는 말보다는 죽음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교훈적 효과에 대한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군의 수염」을 본격소설로 읽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제도화된 사회 조건 속에서 의미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 사람의 죽음을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에서 4.19라는 역사적 혁명을 일구어냈던 김주열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4.19를 겪은 작가 이어령의 시대 감각이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탐정인 박형사나 ‘나’나 “철훈이 왜 죽었는가”라는 동일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타살로 볼 것이냐, 자살로 볼 것이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수사의 목적과 대상이 달라지며, 이러한 이중 추리 과정이 「장군의 수염」의 이중 플롯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군의 수염」은 서사 구조적이고 갈등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추리소설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죽음을 범죄 사건으로 규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문제삼으면서 추리소설에 나타난 사건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있으며, 그것을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추리소설의 사건을 재규정하고 있다.

3. 다원적 진술의 수사와 우울증 환자의 실존적 자살

소설가 ‘나’는 김철훈이 남긴 일기와 소설을 토대로 김철훈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기억을 찾아간다. 그러다보니, 「장군의 수염」은 다원적인 서사 전개로 갖게 된다. “각각의 사건들은 선조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건의 교차와 삽입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철훈의 수기와 신혜의 발화 내용, 그리고 철훈의 소설이 교차하여 서술되면서 서술자의 교체가 빈번

우가 많다. 독창적이고 가끔은 한가하게 여겨지는 사건조사자는 자주 경찰제도의 틀 밖에서 활동한다. 그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들을 이유로 우월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인물이다.
이브 뢰테르, 율진이 김경현,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93쪽.

하게 일어난다.”¹¹⁾

먼저 철훈 누이의 진술은 철훈이 갖고 있는 소심한 성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준다. 철훈은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계급적 조건은 소작농의 아이들과 철훈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원인¹²⁾이 되며,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외톨이로 지내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마에 찍힌 인두 자국은 철훈의 이러한 성격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신체적 결함은 내면적 성격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형은 철훈의 가족과의 관계, 세계를 보는 시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비를 흠뻑 맞고 삼년 만에 형은 집으로 다시 뛰어든 거예요 빗방울을 튀기면서 짐승같이 떨고 있었어요 나를 숨겨 달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몹시 욕하고 있었답니다. 그 놈 때문에 나는 죽는다고도 했고, 이젠 난 빨갱이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소리처럼 떠들어 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껏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철훈이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26-27쪽)

“그 함 속에는 땅 문서와 지적도가 들어 있을 것이다. 야! 땅, 토지, 논과 밭과 그리고 붉은 산들— 그러나 지금은 시효를 잃고 한낱 휴지 쪽이 되어 버린 그 땅 문서를 끌어 앉고 아버지는 눈을 감은 것이다.

땅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형님을 내쫓게 한 땅 아버지를 미치게 만든 그 땅, 해방이 되던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땅의 피해자였다.”(31쪽)

철훈이 믿고 의지했던 형은 땅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땅을 모두 소작인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와 대립한다. 철훈의 아버지는 몰락한 지주지만 땅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어 죽어가면서도 땅 문서가 든 ‘함’을 같이 물어주기를 바랐다. 몰락한 지주 가문의 아들인 철훈

11) 황정현, 위의 글, 395쪽.

12) “신혜-나에겐 친구가 없었어. 우리는 양반집이었고 아버지는 지주였지. 마을 아이들은 상스러운 소작인들, 그리고 행랑과 종들의 자식뿐이었어. 내가 지주의 아들이고 정승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이마의 인두 자국보다 더 앞서 낳을 때부터 찍혀 있었던거야.”(49쪽)

은 “땅의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형과 아버지의 대립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다.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 계급적 이해에 대한 차이로 벌어지는 가족간의 갈등, 이마에 남겨진 커다란 인주 자국 등은 철훈의 과거이면서도 현재의 철훈이 겪고 있을 심리적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잠재적으로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 ‘나는 철훈의 수기와 그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김철훈을 죽게 한 그 범인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삶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범인’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면, 자살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한 자가 범인이라는 논리는 법률 체계 속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수사는 법률적 처벌을 위한 범인 찾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법률적 차원에서만 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에 담긴 사회적 역사적 맥락화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철훈의 애인인 신혜는 죽을 당시의 철훈의 심리적 상태를 진술한다. 시기 상으로는 철훈 누이의 이야기가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성장기의 철훈의 과거를 의미한다면, 신혜의 이야기는 6.25전쟁을 겪은 부녀의 이야기이면서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는 60년대 지식인 청년의 고뇌를 반영하고 있다.

철훈은 접대부였던 신혜의 급작스러운 부탁을 받고서 신혜의 병든 아버지를 돌보게 된다. 신혜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전쟁 때 교회 사람들을 숨겨주다가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을 보고, 숨겨준 사람들을 고발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목사가 배신할 것을 알고 몸을 피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목사는 도덕적 딜레마를 겪는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신에 대한 숭고한 마음이 잔혹한 전쟁의 상처로 인해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나에게 불행하고 기이한... 그래요, 몹시 환상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과 또 내가 멜로드라마틱하게 처녀성을 상실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아마 그이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자신있게 단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요.”(44쪽)

신혜 역시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가 아니라, 피난길에 얻어 탄 기차에서 미군 흑인에게 처녀성을 빼앗긴다. 전쟁 와중에 많은 여인들이 그러하듯, 신혜의 상처는 순결한 삶을 남성적 폭력 앞에서 무참하게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삶의 가치와 존재의미를 상실한데 있다.

나목사나 신혜는 자신들이 겪은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적 죄의식(수치심)을 고스란히 철훈에게 들려준다. 철훈이 그들과 동일시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과 존재론적인 관계과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본질을 봤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동료 병사인 이진을 피신시킨다는 것이 도리어 죽게 만든 이후,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공포를 가졌던 철훈은 이 부녀를 만나게 되면서 아픔을 가진 타인을 만나는 것, 어떻게 남과 섞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¹³⁾ 이렇게 타자와의 연대는 성장기의 철훈이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으며 대립했던 아버지와 형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것이며, 전쟁의 비인간적 현실 앞에서 던져버릴 수 없었던 인간적 고뇌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픔을 전제로 한 연대였기 때문에 신혜는 철훈을 떠나게 된다. 그와의 고백놀이도 추장놀이도 지겨워졌고,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환상’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이는 나를 환상 속에서만 사랑하려고 했어요. 할키면 상채기가 나고 잠이 들면 코를 고는 현실의 나에게선 도망 치려고 애썼습니다. 그이는 다만 그 자신의 꿈들만을 껴안고 산 겁니다. 그이 앞에 나서면 꼭 나는 휘발유처럼 온 몸이 증발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43쪽)

13) “이진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과 서로 섞이려면 같이 범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그는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술이나 도박이나 계집질이 나……. 악에 의해서 뭉쳐지는 결합은 일상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끝은 해가 지면 곧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정말 인간이 타자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를 서로 만지는데 있다.”(59쪽)

신혜와의 관계에서 철훈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상처’만을 환기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혜는 “드라마틱하게 처녀성을 상실한 여자”일 뿐이다. 그 때문에 그 상처를 입고 살고 싶은 신혜와 같음을 빗게 되는 것이다. 철훈의 타자에 대한 연민은 그의 현실적 사랑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신혜는 철훈을 ‘타락한 귀족’으로 인식하며 ‘그의 동정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겪지 못하면서도, 단지 그들을 동정함으로써 동일시될 수 있다는 만연한 기대가 진정 ‘타자들’을 철훈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철훈이 일했던 신문사의 미스터 김은 그의 죽음을 실직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시골 선비 같은 고고한 기질, 융통성 없는 행동, 비사교적인 생활태도”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 섞이지 못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눈빛을 하고 우리를 볼 때마다 싱글싱글 웃었다”고 말하면서, 실직할 당시에는 정신병원의 진단서도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자면, 철훈의 죽음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향을 잃고, 연인을 잃고, 직장을 잃은 한 청년의 우울한 정서가 만들어낸 자살일 뿐이다. 다양한 진술이 이루어지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도 다양하지만, 결국 현실 적응에 실패한 청년의 죽음으로 남는다. 그들의 진술을 하나의 객관적 단서로 본다면, 그들에게 철훈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도덕적 지탄도 행할 수 없다. 모든 내용이 철훈을 죽게 할 수 있는 심정적 사유는 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동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인 ‘나’가 보기에 철훈의 죽음은 사회 부적응자의 단순한 자살로 결론낼 수 없다. ‘나’의 진술듣기 수사는 범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철훈의 실존적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보다 ‘문학적이며 철학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철훈은 신혜와 나목사의 일, 김대사의 사건이나 염상운의 일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갖고 있어야 할 순수성에 집착했다. 안이한 현실타협이나 편협한 권력적 시선을 지양하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갖고 있을 인간적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철훈은 “타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강박당해 있다. 그러한

자기 최면을 깨기 위한 노력들(고백놀이, 추장놀이 등)이 더욱 그를 비현실적이고, 비타협적인 우울한 존재로 만들어 갔으며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나의 추리는 우울증 상태에 빠진 실존을 치유하지 못한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하게 된다.

4. 층층 구조와 정치적 타살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야기 층위에서 「장군의 수염」에 문제적으로 제시된 철훈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판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소설가 ‘나’의 탐정으로서의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된다. 그는 허구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소설가일수는 있지만 사건의 범인을 찾는 탐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군의 수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소설가 ‘나’는 범인을 찾는 논리(추리)를 찾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정황과 맥락을 전달하는 서술자로서는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서두에도 박형사의 말을 통해 제시되어 있듯, “문학가나 철학자로서” 철훈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수사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리소설과는 다른 탐정을 설정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추리 과정이 필요하다. 메타픽션적인 성격이 강한 「장군의 수염」과 같은 작품들에서 강조되듯, ‘새로운 읽기’가 요구된다.

「장군의 수염」에 대한 읽기는 수평적 조건에 따른 사건 전개로 읽었을 때는 살인사건도 범인도 없는 추리소설이 되고 만다. 아니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리소설이 아니다. 그러나 서사적 층위를 가로지르는 횡적 읽기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시각은 작가가 작품 집 말미에 적어놓았듯 자신의 소설을 ‘샌드위치 소설’이라고 말하며 “한 인간을 여러 층으로 칼질해 낸 것”이라고 말하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군의 수염 은 철훈의 소설과 그의 수기, 신혜의 이야기 등 ‘속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자는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 소설가 ‘나’가 서술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신혜의 진술 및 철훈의 수기와 소설(「장군의

수염)이라는 서사적 층위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야기 층위에서도 철훈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기억과 그에 따른 진술들은 철훈의 인간됨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을 확인하게 하며, 단일한 성격 구성을 넘어서는 복합적 인물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설가 ‘나’나 박형사가 탐정이 아니라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가 제3의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복합적 서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살인사건’과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철훈이 쓰려고 했던 「장군의 소설」이라는 소설은 작품의 초반부에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면서 제시되고, 결론 부분에서 결말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소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철훈이 쓴 「장군의 수염」이 소설 속 허구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철훈이 빠져 있을 도덕적 딜레마와 자의식적인 억압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한다.

“그는 지수를 했다. 술을 죽도록 마시고 파출소 문을 걸어 차고 들어 간다. <장군의 수염>을 기른 파출소 주임에게로 가서 「저를 잡아 넣으십시오 죽어도 죽어도 수염을 기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서 수갑을 채우고 형무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울면서 말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쫓겨 난다. 수염을 기르고 안 기르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었다.”(20쪽)

철훈이 쓴 소설 「장군의 수염」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오랫동안 수염을 깎지 못한 혁명군이 집권하면서 사람들은 혁명군의 수염을 따라서 기른다. 그러나 주인공은 모두가 혁명군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스스로 기를 수도 없어 불안해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60년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화로 읽힌다.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 도상적 욕망에 집착하는 소설 속 대중들은 60년대 군부 독재가 성립되고 반공과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해가는 60년대 소시민과 다를 바가 없다. 수염을 기르는 일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일이며, 자율적 선택에 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소한 자율적 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한 개인이 빠진 정치적 딜레마와 현실

적 불안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소설은 단순히 문학청년의 글쓰기에 머무르지 않고, 소설 경계를 넘어 어령이 쓴 「장군의 수염」을 판통하는 시대적 정신을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속화된 사람들 속에서 연민의 시선과 죄의식을 갖고 사는 철훈이 어떻게 소외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간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철훈이 쓴 「장군의 수염」이 일차적인 상징성을 넘어서, 이야기 층위에서 철훈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며,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신혜가 철훈에게서 전해들은 「장군의 수염」의 결말 때문이다.

“수염 때문에 나는 죽는 거다. 나는 죽음을 당한 거다. 아 — 수염을 기르지 않는 최후의 인간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인간, 수염을 달기 이전의 그 사람의 얼굴을 간직한 유일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교통사고사라 할 것이다. 우연한 교통사고라고 말이다.”(90-91쪽)

소설 속 주인공은 자신이 정치적 살해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최후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이 인물이 정치적으로 살해당했든, 우연적인 교통사고를 당했든 그의 죽음이 결코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처해있는 수염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는 강박적 의식은 그 정치적 억압의 실체를 떠나서, 한 개인이 정치적 획일화에 갇힌 사회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정치적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정의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감각은 폭력의 피해를 받은 자의 인식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죽음에 어떠한 정치적 위협도 객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설 속 주인공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주인공은 정치적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논리화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4의 탐정을 마주하게 된다. 철훈이 쓴 소설 속의 인물인 ‘나’의 논리화 과정은 철훈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이면서도, 철훈의 죽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추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단서나 범인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해석 방법, 추리 방법이 중요했던 것이다. 범죄 사건을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 범인을 찾아가는 논리를 철훈이 쓴 소설 장군의 수염 에서 차용하여, 실제 철훈의 죽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객관적인 정황상, 철훈의 죽음은 자살에 가깝다. 그러나 그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내면화한 계급적 의식과 타인에 대한 죄의식은 한 개인이 자율적 의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사회부적응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도 타인의 불행과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적 통념과 획일화된 강박적 일상이 만들어낸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이 우연적인 자살처럼 보일지라도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정치적 타살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를 박형사나 소설가 ‘나’가 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박형사가 아직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소설가 ‘나’가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 어렴풋하게 떠오르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라고 말하면서 판단 중지를 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추리를 거부하는 것이거나, 그들이 철훈의 죽음을 메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담론적 위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군의 수염」이 끝났을 때 이야기 층위에서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 사건, 진행 중인 수사의 형태로 철훈의 죽음은 남게 된다. 범인도 살인의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서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다.

그러나 모든 독서행위가 끝났을 때, 제3의 탐정인 독자는 제4의 탐정이 내린 추리 방법을 통해 철훈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인을 메타적인 의미화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리소설에는 실제 독자와 이야기 속 탐정이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결국 탐정의 승리로 끝나지만¹⁴⁾, 장군의 수염 은 탐정들만큼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¹⁵⁾ 독자의 해석 과정이 남아있고 또 그 해석 과정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과 의미가 바뀌게

14) 조성면, 『대중문화의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43쪽.

15) “반다인의 20가지 법칙에 따르면, 첫째, 독자와 탐정은 문제를 푸는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작가는 독자에 대해 범인이 탐정에 대해 사용하는 것들과 다른 속임수들과 계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토마 나르스작, 윌킨이, 김중현,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108쪽.

된다. 소설가 ‘나’가 철훈이 쓴 소설 ‘<장군의 수염>’ 속 ‘나’와 추리 경쟁을 하고 있다면, 「장군의 수염」의 실제 독자 역시 실제 작가와 소설가 ‘나’, 이야기 속 이야기 속의 ‘나’와 서사적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¹⁶⁾

실제독자인 ‘필자’는 ‘철훈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작가 이어령은 1957년 8월호에서 12월호까지 『문학예술』에 「카타르시스 문학론」을 기고하며, ‘카타르시스 문학론’을 펼친다. “이어령은 무엇인가를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과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카타르시스 개념으로 창작 심리의 본질과 창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논했다.”¹⁷⁾ 여기에서 주목해 볼 내용은 이어령이 글에서 제시한 ‘사건-인간-반응’ 도식이다.

E(event) -----> P(personality) -----> R(response)

외부의 사건(E)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작가(P)는 내면의 균형을 상실하고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환경과 생명체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위기>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같은 자극을 무조건 피하지 않고 자극을 향해 반작용한다. 창작행위를 통해 E --> P --> R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¹⁸⁾

작가는 외부 자극의 충격을 자신의 소설 창작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사건(작품)을 만들어내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장군의 수염」에 나오는 소설가 ‘나’가 바로 이러한 소설 창작방법론으로 「장군의 수염」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작가가 아닌 일반적인 존재자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이야

16) “포우는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수께끼, 그것도 반드시 풀이지도록 해답을 미리 정해놓고 엮어놓은 수수께끼, 이것을 푸는데 무슨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겠는가. 다만 독자가 탐정의 기교와 작가의 기교를 혼동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 반스는 ‘추리소설의 어려움은 언제나 독자의 재능이 작가의 재능보다 뛰어난 데 있다’고 했다.”

이상우, 「추리소설의 안과 밖-문학으로서의 추리소설」, 오늘의 문예비평, 1993, 283쪽.

17) 류철균, 이어령 문학사상의 형성과 전개-초기 소설 창작과 창작론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2001, 363쪽.

18) 이어령, 「카타르시스 문학론5」, 『문학예술』, 1957년 12월호, 199-201쪽. 류철균, 위의 논문, 재인용.

기 속 이야기인 철훈이 쓴 <장군의 수염>의 ‘나’ 역시 장군의 수염을 기르려는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할 집단성(E)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P),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차에 뛰어든다(R). 철훈 역시 인간적 이해와 동정이 불가능한 파편화된 전후의 사회 현실(E) 속에서 괴로워(P) 하다가 자살을 하게(R) 된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외상(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자살 행위야말로 실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존재자의 유일한 사건(R)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박형사나 소설가 ‘나’에게 문제적 사건(E)이 되면서 의문과 호기심으로 존재의 내면을 흔들어놓고(P) 수사를 진행하게 한다.(R) 이러한 연쇄 반응은 독자에게 이어져, 문제적 사건(E)은 중첩되고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 무수한 의미있는 차이의 사건(EX)이 되고, 문제적 행동(RX)이 된다. 그러한 문제적 행동이 사회비판적인 혁명적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작가 이어령의 시대적 환경과 현실에 대한 실존주의적 비평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장군의 수염」은 정치적 문제의식이 추리 형식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알레고리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소설은 소시민이 겪게 되는 정치적 좌절과 억압적 권력의 실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추리소설 형식은 독자에게 소설 속 소설인 <장군의 수염>이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되며 그것을 해석해야 함을 제시하고, 내면화되어 있는 갈등과 문제의식을 찾는 탐정의 역할까지를 부여하고 있다. 「장군의 수염」에 대한 해석은 그 중층 구조를 통해 서사를 탈맥락화함으로써,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서 담론, 독서 차원으로 확장되어 철훈의 죽음이 갖고 있는 ‘사인’을 의미화하며, 수사 방식 자체를 문제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알레고리적 독해는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일회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고 변증법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고, 작가의 문학창작에 대한 해석학적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5. 결론 : 메타-추리소설 양상과 60년대 소설 기법

이상에서 정통적인 추리소설 양식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이어령의 「장군의 수염」이 메타-추리소설의 양상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추리소설의 관건이 되는 ‘철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장군의 수염」이 전개되어가는 동안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다. 철훈의 죽음은 처음에는 ‘범죄 사건으로서의 죽음’에서 ‘실존적 자살’을 거쳐 ‘정치적 타살’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은 ‘사건’에 대한 발생론적 가치보다는 해석학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장군의 수염」에는 우월한 한 명의 탐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탐정이 등장하고 그 각각이 서사적 경쟁을 하고 있다. 이야기선 상에서 박형사와 소설가 ‘나’가 탐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철훈의 소설 속 ‘나’ 역시 문제 해결의 단서를 갖고 있는 탐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 밖의 이야기인 독자 차원에서도 독자 스스로가 탐정이 되어 소설의 의미와 철훈의 죽음을 추리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추리방법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통합체적(syntagmatic) 추리보다는 이야기 층위를 가로지르는 중층적 이면서도 은유적인 계열체적(paradigmatic) 추리를 해야만 철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철훈의 죽음은 범인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개인의 삶에 내면화되어 있는 정치적 현실 속에 작동하는 폭력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60년대 정치적 현실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장군의 수염」의 이러한 양상은 60년대 장르소설의 내용 및 형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대중 문학은 방인근, 조흔파, 정비석 등에 의해 많이 쓰여졌는데, 방인근의 경우 50-60년대에 100여권에 가까운 소설을 쓰기도 했다. 60년대 추리소설의 경우도 번안소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순수창작 추리소설의 경우는 허문녕, 백일완, 방인근 등에 의해 겨우겨우 그 명맥을 유지되었다.¹⁹⁾ 그러나 이 시기의 추리소설은 좌우대립, 분단, 전쟁 등 역사적 격변 속에서 통속성 및 선정성 그리고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작가들 역시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문학적정보는 상업성에 더 치중함으로써 많은 대중독자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60년대 추리소설의

19) 조성면, 「한국추리소설사에 대한 변명」, 『플랫폼』, 2008, 16쪽.

내용과 출판 상황에서 보자면, 「장군의 수염」은 본격소설의 경향에서 장르소설로서의 추리소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소설 기법의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던 맥락에서 보자면, 「장군의 수염」은 본격소설과 장르소설, 지식인/대중의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양식과 내용을 혼용하며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는 알레고리적인 메타소설이다. 또한 사실주의적 경향과 추리 형식을 결합하여, 60년대 소시민이 겪게 되는 현실과 전쟁 후의 존재론적인 위기 사이의 간극을 표현하고 있다. 소시민의 일상과 삶의 궤적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정치 담론의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장르소설과 추리소설의 절묘하고도 이질적인 결합을 잘 이끌어냈다. 60년대 소설이 자의식적인 세계를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 구체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소설 양식을 실험하던 시기였고²⁰⁾, 그 시기에 가장 활발한 문학적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어령의 소설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그의 소설이 이러한 60년대적 소설 경향을 다분히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60년대 소설의 시학을 논함에 있어 그의 문학적 역할은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0) 60년대 한국 소설은 인간의 감수성과 내적 정체성 문제, 소설 형식의 실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구체화하던 시기였다. 황순원은 전후 세대의 현실감각에 친착을 통해 인간구원의 문제를 다루었고, 김승옥은 소설 문체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며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훈은 패러디와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당대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시대정신에 대한 지식인의 내적 고민을 담았고, 이청준은 소설의 중층구조와 메타픽션의 형식을 현대소설 속에 담아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어령, 『이어령 소설집-장군의 수염/전쟁테카메론 외』, 현암사, 1966.

2. 연구자료

김영성, 「추리소설의 근대성과 문학적 가능성」, 한국언어문화 제21집, 130쪽.

남경태, 『개념어 사전』, 2006/2007, 431쪽.

류철균, 「이어령 문학사상의 형성과 전개-초기 소설 창작과 창작론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2001, 363쪽.

박미령, 「타자담론의 서사전략: 전통추리소설의 모방과 변주」, 노어노문학 제19권 제3호, 2007, 172쪽.

박이문, 『사유의 열쇠-철학』, 산처럼, 2002, 55쪽.

배경열, 「50년대 실존주의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252쪽.

백대윤, 「형이상학적 추리소설 <장군의 수염>연구」, 어문연구 51, 2006, 108쪽.

이브 뢰테르, 옮긴이 김경현,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93쪽.

이상우, 「추리소설의 안과 밖-문학으로서의 추리소설」, 오늘의 문예비평, 1993, 283쪽.

이어령, 「카타르시스 문학론5」, 『문학예술』, 1957년 12월호, 199-201쪽.

이태동, 「<장군의 수염>과 캐논 문제」, 『구조와 분석2』, 도서출판 창, 1993.

조성면, 「한국추리소설사에 대한 변명」, 『플랫폼』, 2008, 16쪽.

조성면, 『대중문화의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43쪽.

토마 나르스작, 옮긴이, 김중현,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108쪽.

황정현, 「중층 구조의 경계 완화를 통한 의미 탐색」장군의 수염의 서술구조 연구」, 현대문학 이론편, 2003, 394, 410쪽.

P. Merivale & S. E. Sweeney, "The Gaw's Afoot", *Detecting Texts: The metaphysical detective story from Poe to Post-modernism*, Uni of Pennsylvania, 1999, p.2.

Abstract

A Study on The Meta-Detective Novel Mode in *General's Beard*

Oh, Youn-H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ext-structure and the aspect of meta -detective novel in *General's Beard*, and tried to investigate the meaningof meta-mystery novel for emerging of South Korea early detective novel in 1960's and the problems consciousness about the metaphysical issues in the form. During the process, there were represented that the violent of internalized experience of war and the dominant-subordinate ideology infect a psychological and political impact to citizens.

General's Beard made the question how to deal Cheolhun's death with the event of crime and presented new vision about general structure of the detective novels. It had the structure of two plot as detective Bark' investigation and novelist 'Na's investigation. Their investigation were the pocus on statements rather than evidence. In that process, there were the question whether the death of depressed patient is suicide or homicide. *General's Beard* has the story in the story. That fact was presented as complex structure of narrative progress, and showed that Cheolhun's death had meta-means and that this novel had the means of meta-fiction and the means of political ideology.(Key words : Detective novel, Double-Plot, Meta-Fiction, Catharsis, Existence)

위 논문은 2009년 10월 10일 제33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획논문으로 발표되었 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